

2. 영성

데레사 수녀는 비범한 사람이었다. 그녀를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동의한다. 뛰어난 지성과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대화와 토론에서 거의 언제나 상황을 리드했다. 아라곤 사람 특유의 강한 의지를 물려 받은 동시에 감수성 깊은 섬세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훌륭한 솜씨로 금실로 수를 놓는가 하면 작곡과 시에도 조예가 깊을 정도로 다재 다능하였다.

그녀는 일찍부터 하느님께로 이끌렸다. 그리고 죽기까지 온전하게 자신을 바쳤다. 그녀의 철저함에 어떤 사람들은 감탄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혹함을 금치 못하였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관대한 성격은 '적당히' 라는 말을 알지 못했다. 그녀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와 데레사 수녀 두 사람을 저절로 비교하게 된다. 성격이나 영성 면에서 둘이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데레사 수녀 역시 "저의 본성은 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영혼들이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녀를 열정적으로 따랐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그녀의 이런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정신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복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어디 또 있는가? 반면에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개인 마다 다르고 각자가 받은 성소와 은총에 따라 다르며 시기에 따라 달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감각과 신중함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데레사 수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불 같은 열정에 이끌렸다.

그녀의 영성은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예, 저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항상 같으신 분, 하느님... 하느님, 당신의 한결같은, 당신의 고요함, 그 침묵이 저를 사로 잡습니다. 당신은 항상 같으신 분, 그 무엇에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랑에 빠지신 분, 지칠 줄 모르는 연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침묵 앞에 다가 섰고 늘 같으신 당신의 눈, 삶을 부수고 그 부서진 삶을 그대로 당신 발치에 남겨두는 저 강렬하고 꺾이는 듯한 당신의 두 눈과 마주 쳤습니다. 하느님...하느님...숨막힐 듯 강렬하고 오묘한 당신의 침묵! 당신이 잠자코 계시기에 모든 것이 너무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이 공기를 가립니다. 그 누구도 소리내지 못하고 바람마저 멈춰 서 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랑이 벌써 저를 장님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왜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 없이 물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무한한 자비가 저의 비참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혹, 부자가 자기의 넘쳐나는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 가난뱅이가 필요하듯 제가 필요한 것입니까? 학자가 자기 지식을 발휘하기 위해 무식쟁이가 필요하듯 저를 향해 다가오시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이는 훨씬 더 심오하고 하느님스러운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짚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무엇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작은 피조물을 조금은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 그 존재의 심부(心部)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생하신 말씀, 예수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였다. 이 열정적인 사랑은 그녀가 받은 영감에 따라 조각가 비센트가 제작한 수도원 성당의 십자 고상의 역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녀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항상 꿈꾸어 왔었다. 그녀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살펴보자.

“저의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의 삶, 곧 제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존재하고 숨쉬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입니다. 제 삶이라곤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 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 보다 더 나의 것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유입니다. 그분은 내 영혼의 영혼, 내 생명의 생명, 내 존재의 기초이자 뿌리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존재에 의미를 주고 신화(神化)시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사랑, 나의 완성이요 나의 희망이자 전부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였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분을 만났다. 그녀는 늘 성경과 친숙했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체 안에서 그분을 만났다. 그녀가 남긴 <성체 안에 타버린 삶>이란 책에는 성체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성체야말로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고 미사와 영성체를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았다. 테루엘 전투에서 포위되었을 때 성 요한 성당에 방치된 성체를 영웅적으로 구해 내기도 하였으며 <가톨릭운동> 시절 바쁘게 오가는 동안에도 영성체를 거른 적이 없었다. 1950년 성년에 그녀는 로마로 순례를 떠났다. 순례 중에 매일의 영성체를 잃지 않기 위해 겪은 사건들은 생생한 모험담 내지 하느님 섭리의 체험담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

체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임종의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마지막 며칠 동안 병실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었다. 거의 죽어가는 그녀였지만 열렬하게 성혈을 받아 마셨다. 이외에도 그녀는 밤을 지새우며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감실 앞에서 지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마음껏 하느님을 호흡하였다.

나)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데레사를 마리아에게로 이끌어 갔다. 특별히 수도원에서 그녀는 그리스도교 신비의 핵심인 마리아 안으로 더욱 깊이 파고 들었다. 자주 성모님에 대해 얘기하고 많은 글을 남겨 놓았다.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보내시는 하느님의 미소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미소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미소 지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마리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두려워 떨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끌어 안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하느님 안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성모님께 당신의 성심 안으로 데려가 달라고 청하십시오. 거기서 세상 것들은 뒤에 남겨두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들에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 성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성모님!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제 존재를 다하여 당신의 사랑, 당신의 기쁨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처럼 철저히 살고 싶습니다. 행복선언에서처럼 온유해지고 어머니와 아드님 두 분처럼 사랑에 빠져 살고 싶습니다.”

수도원 정원 중앙에 모셔진 '예'의 성모상과 성당 감실 곁에 계신 히브리 성모상은 마리아에 대한 그녀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라 하겠다.

다) 교회

데레사는 견고하고 체계적인 양성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러한 양성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결과 수도원은 교회에 대한 깊은 안목과 사랑으로 약동하게 되었다. 교회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성당 격자 앞에 놓인 지구본은 수녀들에게, 그들의 어깨에 세상의 무게가 놓여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모든 이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서서히 태워가며 교황, 수도회, 사제, 선교사업과 교회 일치 운동 그리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침묵 속에 기도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이다. 여기 데

레사 수녀의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교회는 자기 마음을 봉헌된 영혼들에게 열어 보입니다. 만민의 어머니인 교회는 그 마음 속에 간직된 헤아릴 수 없는 신비들,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합니다.

봉헌된 영혼들 안에 그 고통의 메아리가 울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큰 아픔으로 신음할 것입니다. 격동하는 교회 앞에 눈을 뜨시다. 이 깊은 현실 앞에 깨어 있습니다.”

그녀 안에 깊이 뿌리내린 교회에 대한 넓은 안목이 수녀들에게도 전염되었고 이는 수도원 창립이라는 대장정으로 이어진다. 특별한 것은 이미 많은 관상 수도원이 존재하는 스페인의 다른 수도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녀들을 파견하지 않고 순수 관상 수도원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진출하여 그 지역 교회의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의 사대륙에 도미니코 관상수도원들을 설립할 수 있었다. 데레사 수녀는 교회 안에 특별한 사명을 지닌 교회의 사람이었다.

라) 기도

기도는 그녀의 생명이었다. 수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했던 젊은 여성 '가톨릭운동가', '하느님의 구르는 돌'은 참으로 진정한 관상가였다. 그녀는 기도에서 사도직을 위한 힘을 얻어 내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 기도하며 하느님과 단순하고 사랑스런 대화를 나누며 수

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다.

기도에 대한 갈망은 그녀를 봉쇄수녀원으로 이끌었다. 세빌라의 예로니모 수녀원에서 그녀는 마음껏 관상의 물을 마실 수 있었다. 특별한 책임이 없는 평범한 수련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규칙 준수에 충실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살았다. 올메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녀원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면서부터 일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원장직을 시작하며 정해놓은 하루 두 시간의 기도 시간은 절대로 빼놓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병세가 위중해지고 고통과 불면으로 밤을 지새 때 많아지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속죄제물로 바쳤다. 영적 광야에 대한 그리움이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정작 고요함과 따뜻함을 맛 볼 시간은 잠시 뿐이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영혼을 고독 속으로 데려가 그의 마음에 속삭이리라.
거기 바위 틈, 그 신비스런 동굴 안에 그를 숨기리라.
온통 빛에 휩싸여 오직 신적 어두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신비만이 감도는 그 바위로 데려가리라.*

*그 그리던 바위로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 침묵의 영역으로 데려 가시어, 광야적인 고독, 죽음과 생명, 빛과 어둠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들로 그대를 감싸 주시도록 맡기십시오.”*

마)그녀의 감수성과 열린 마음

타인을 향해 열린 그녀의 감수성은 공동체 자매들과 <천주의모친> 모든 수도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일치로 구체화 되었다. 일치와 사랑은 데레사 수녀의 영성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싸웠으며 말년에 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과제였다.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수녀들을 하나로 만들고 모원과 분원들 사이의 정체성과 일치를 보존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했다. 이 일은 뛰어난 자질과 열정을 가진 데레사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영혼들의 일치를 위해 시련의 도가니에서 자신을 불살랐다.

모든 이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과 노력을 이해하고 높은 곳을 향한 용감한 걸음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했던 것은 아닌가? 또는 매우 다른 수녀들을 빠르게 일치시키기 위해 몇몇 사람들을 편애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나 언제나 항상, 모든 상황에서 바르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순수한 지향과 진실함, 깊은 사랑과 자기 잊음으로 만사에 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데레사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잊혀지고 천대 받고 멀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속담을 자기에게 적용하였다. 성인들도 결점과 한계를 지닌 인간이다. 데레사 수녀는 분명히 성인이었고 그것도 범상치 않은 위대한 성인이었다. 어쩌면 그녀의 강렬한 성격, 불 같은 기질, 열렬한 갈망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3. 영적 유산

데레사 수녀는 교회와 도미니코 수도회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지닌 거룩한 예언자였다. 그녀가 남긴 유업인 일곱 개의 수도원*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준다. 이 수도원들은 현대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전통적인 여자 관상 수도원의 엄격함을 지키며 사도직 없이 겸손한 노동으로 가난하게 살아간다. 수도원들에는 데레사의 정신이 생생히 살아 있으며 젊은 수도자들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그녀의 저서 “우리 서약에 대한 예(yes)”에 수도원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사랑과 침묵, 겸손과 선교 정신으로 가득 찬 관상 생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남겨 준 아빌라와 리지외의 두 데레사에 우리의 데레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데레사는 격동하는 이 시대에 도미니코 수도회와 보편교회 그리고 스페인에 보내 준 하느님의 크나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발도메로 히메네스 신부

1981년 5월, 아빌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루 또 하루, 한 시간 또 한 시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바라볼 때, 우리 두 눈은 그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빛이 삶 속으로 들어 오고, 온 존재는 하느님의 반영이 됩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십시오... 그대의 온 생애를 그분을
바라보는 데에 소비하십시오. 두 눈이 으스러질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그대를 바라볼 때 그리스
도인들의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생명의 하느님이 누구신
지, 사랑의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데레사 마리아 수녀